

장애인과 일터

Vol.339

2023 JULY
KEAD Monthly Magazine

새콤달콤, 힐링이 필요해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JULY Vol.339

새콤달콤, 힐링이 필요해

7월은 휴가의 계절이지요. 한 해의 반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 태양 아래 수영하는 사람들, 그늘 속의 시원한 바람, 계곡물에 담가둔 수박, 얼음 가득한 음료 한 잔, 느긋한 늦잠과 읽고 싶었던 책... 모두 다 좋습니다. 새콤달콤, 힐링의 시간을 맘껏 즐기세요!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새콤달콤, 힐링이 필요해
- 04 **생각 더하기**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
- 06 **공감 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우리나라 점자의 역사 알아보기
- 10 **일터 트렌드**
여행 짐 관리원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공단과 제대로 ‘핏’이 맞는 변호사, 이성준입니다.”
- 16 **함께하는 일터**
“경험을 발판삼아 지속가능한 내 일을 꿈꿉니다.”
- 20 **우리는 KEAD**
“소통협력실의 단짝 케미로 단짠 휘낭시에를 만들었습니다.”
- 24 **KEAD 포커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 28 **세계는 지금**
스페인, 독보적인 장애인고용 재단을 만들다



공감, 함께하다

- 32 **트렌드 보고서**
지출 제로(0), 이젠 절약 과시의 시대
- 34 **배리어프리 여행**
도심 속 힐링스팟, 수원 영흥수목원
- 36 **컬처 플러스**
모두를 위한 미래, 넷플릭스 드라마 ‘어웨이’
- 38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9 **KEAD 톤**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호흡기장애 편
- 41 **KEAD 뉴스**
- 42 **KEAD SNS**

새콤달콤, 힐링이 필요해

바쁨이 없고 화려한 자극이 없는, 쉬

여러분, 지금 당장 쉬고 싶지 않나요? 평소 우리의 일상은 매우 바쁘고 빠르게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업무와 공부, 여러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복잡함, 비교 우위를 따지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까지. 그 무게감이란 때때로 정말이지 버거워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쉬이 피로를 느끼고 자주 지쳐버리기 일쑤고요. 노랫말 중에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라는 가사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산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거나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어떤 힐링법이 필요할까요?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힐링은 신체적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꿀잠을 충분히 자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 휴식입니다. 무념무상으로 그저 멍을 때려도 좋고 명상이나 요가, 독서, 음악감상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휴식도 매우 중요해요. 나 자신을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나 공간에 두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순간, 반려동물과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시간, 취미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맨발 걷기가 가능한 조용한 숲속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처럼 바쁨이 없고 화려한 자극이 없는 힐링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살피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자기 자신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거지요. 그로써 앞으로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지치고 무더운 7월, 여러분 모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새콤달콤한 힐링의 순간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 ‘초록여행’ 함께 떠나요!

글 한정재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여행에서 만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업 날, 나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종강 인사를 했다.

“여러분 모두,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 다들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수고한 저 자신을 위해 여행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수고한 자신을 위해 여행을 선물하세요.”

많은 이들이 그렇겠지만 나는 삶에 지치는 순간이 오면, 매번 회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다. 지방의 소도시나 나지막한 산으로, 한강을 길 따라 걷기도 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해외로 떠나기도 한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지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자유로움을 찾고 싶기 때문이다.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여유와 설렘이라는 선물은 몸과 마음을 기분 좋게 자극한다. 일상에서 느

낄 수 없는 자유를 맛보고, 새로운 환경과 경관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일하기에 늘 설렘이 앞서기 때문이다. 여행지에 도착한 후 거친 산에 오르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걷고, 조용한 숲을 헤매는 일은 때로 몸을 고단하게 하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준다. 이는 진정으로 신기하고도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왜일까. 여행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의 나를 만나게도 한다. 새로운 여정으로 잠들어 있던 열정과 꿈을 되새기며 미래의 나까지도 멀리 내다보게 해준다. 아마도 여행 도중 나 자신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일 터이다. 동행자와 여행할 때의 장점도 크다. 서로의 관계가 재편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간 서로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이나 미뤄두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관계가 긍정적으로 새로워진다. 여행을 계기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도 되고, 나의 자아를 깊이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 모든 여행의 과정은 나에게 힐링이라 불릴 만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이 회복 효과가 떨어질 즈음 나는 또다시 여행을 준비한다.

장애인분들에게, ‘초록여행’을 선물하다

나는 이러한 여행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많은 이들에게 여행을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몸이 불편해서 여행을 떠나기에 여건이 여의찮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바로 장애인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초록여행’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가 이 초록여행(www.greentrip.kr)을 모형으로 장애인 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롭기도 하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초록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볼 때의 보람이 매우 크다. 내가 여행에서 느낀 그대로 자유와 열정을 느끼고 가족과 관계도 회복됐다는 얘기들이다.

“초록여행은 지친 나를 일으키는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 조금 늦었다면 서로의 감정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을 만큼 끝이 컸을 겁니다. 적정한 시기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초록여행은 저희에게 여행의 수단이 아닌 행복의 수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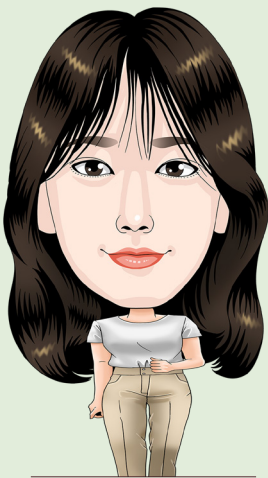
초록여행은 장애인 당사자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차량을 기반으로 한다. ‘항공·숙박·차량·여행경비’를 포함한 자유로운 여행도 제공하고 있으니,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더불어 초록여행이 아니더라도 독자분들 중 누군가 지금 삶에 지침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 보시길 추천한다. 어디든 상관없다. 작은 마을이나 멀리 떨어진 나라, 가까운 자연 속이나 도시의 변화한 골목이라도 말이다. 여행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선사해줄 것이다. 또 경험과 만남을 통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것이므로.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힐링해요, 나만의 방법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힐링’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저마다의 힐링을 통해 또다시 긍정의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 또한 ‘나만의 힐링 방법’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힐링 이야기를 들어보자.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김혜진 전임평가사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힐링이죠

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 직무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무개발 관련 연구, 신규 개발 직무와 기존에 개발된 직무에 대해 사례관리 및 보급·확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서울에서 성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금요일쯤이면 피로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면서 ‘얼른 서울(집)로 가서 힐링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남편과 함께 집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과 어울리는 술을 마십니다. 그와 수다를 떨다 보면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싹 잊게 되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음식으로 해장까지 하면 완벽한 힐링 코스지요. 이렇듯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힐링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지구마블 세계여행’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행 유튜버가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일상을 벗어나 한국인들이 많이 가보지 않은 나라에서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듣기 좋은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카펜터스의 ‘Close To You’라는 팝송인데요, 여유로운 아침에 기분 좋은 가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힐링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기준 과장

광주지역본부 기업지원부

“

가끔은 머릿속을 비우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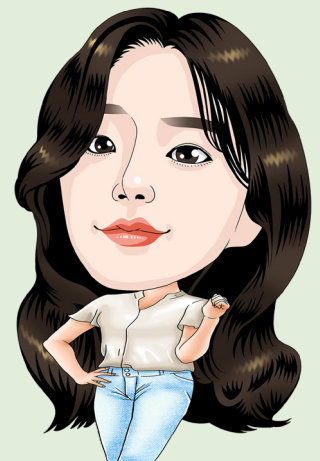
광주지역본부 기업지원부에서 부담금과 장려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혼자 근처 공원이나 천변을 산책합니다. 걷다가 벤치가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풍경을 보고, 이런저런 자연의 소리를 듣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자주 산책하려고 해요. 최근에는 친구가 지인들과 ‘밴드’를 만들어서 곡을 연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잘 다루지 못하는 악기를 정해 곡을 연습하는 모습이 멋있고 재밌어 보였어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의 근원이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전에 김중혁 소설가의 「뭐라도 되겠지」라는 에세이를 읽었는데, 가끔은 책 제목처럼 ‘무책임한 마음으로 머릿속을 비우고 산책을 다녀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퇴근할 때 오아시스(Oasis)의 ‘Don’t Look Back In Anger’이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멜로디를 듣고 있으면 열심히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이 노래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지사 기업지원부에서 근로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로지원인들과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요. 가끔 동료들이 저에게 피곤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나름 전날에 푹 자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출근했는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힐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새로운 장소와 자연풍경 속에서 쉬고 있을 때 ‘긍정의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즐기지요. 지사의 관할이 넓어서 매일 여행 하듯 출장을 가는데 김해부터 거창까지 새로운 곳을 다니는 것도, 공장 입구의 강아지들과 노는 것도 꽤 힐링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스티븐 크 보스키 감독의 영화 <월플라워>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 지친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지칠수록 여유가 없겠지만 사무실 책상에 화분 하나를 가져다 놓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숨구멍들을 찾아나서 보는 건 어떨까요?



한지연 대리

경남지사 기업지원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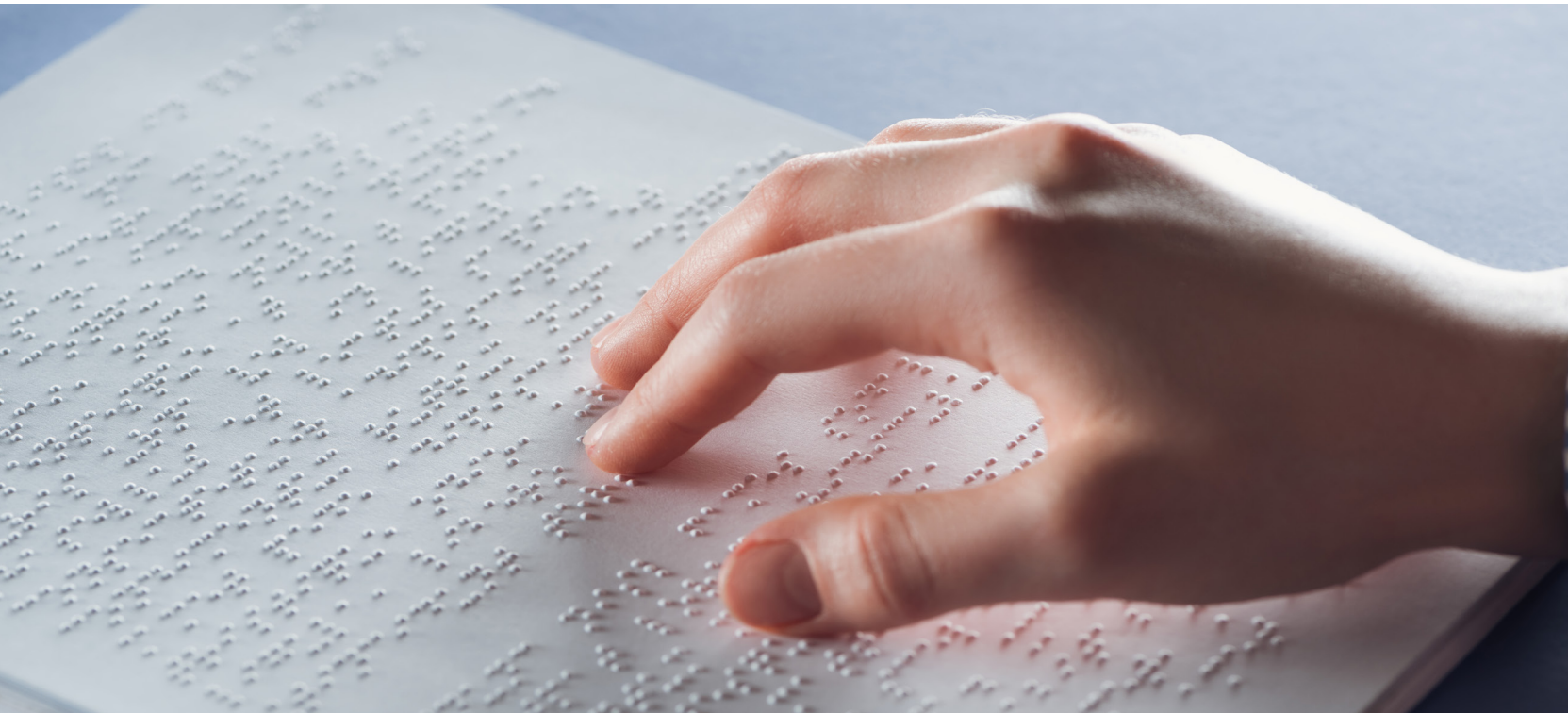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점자의 역사 알아보기 ‘훈맹정음’ 들어보셨나요?

점자는 지면에 볼록 튀어나오게 점을 찍어 시각장애인들이 손가락 끝의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특수한 부호글자이다. 19세기 초 프랑스 육군 장교인 ‘니콜라스 바루비에’가 야간 작전 시 암호용으로 처음 개발하여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파리맹학교에 전달되어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점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글 편집부



1926년, 우리나라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발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는 1894년 미국인 선교사인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가 만든 점자는 총 4개의 기호로 만들어졌으나 기호의 수가 부족해 언어체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외에도 자음 3점, 모음 2점으로 구성된 3·2점 점자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초성과 종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됐다. 현재의 통용되는 한글 점자는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발표한 ‘훈맹정음(訓盲正音)’에 기반했다. 기존에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초성, 중성, 종성이 완전히 구분되고 대칭성을 활용해 체계적

으로 완성되었다.

박두성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장애인 교육기관인 조선총독부 산하 제생원의 ‘맹아부(현 서울맹학교)’ 교사였다. 그는 시각장애인들이 일본어 점자를 배우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함께 한글 점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박 선생은 프랑스의 파리맹학교 교사였던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가 고안해 낸 6점식 점자를 참고했다. 한글의 6점식 점자는 세로 3개, 가로 2개로 구성된 점을 조합해 초성과 중성으로 구분된 자음과 모음의 문자로 완성되었다. 그의 끈질긴 노력으로 1926년 11월 4일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이 발표됐다.

이 훈맹정음을 기초로 199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몇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한글 점자에 관한 ‘한국점자규정’을 제정해 ‘표준한국점자’를 공표했다. 다시 이를 바탕으로 1998년 ‘한국점자규정집’을 발간했고, 2006년과 2009년에는 재개정된 한국점자규정을 고시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제품군에 점자 표기 적용

‘한글 점자의 날’은 11월 4일이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더불어 1926년 11월 4일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만들어서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점자의 원형인 훈맹정음 발표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매년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자사 제품군에 점자를 표기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LG전자는 지난해 모든 가전제품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점자 스티커’를 한글 점자의 날 기념으로 무료 배포하고,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현재까지 이벤트를 이어가는 중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스티커를 활용하면 전원, 동작, 정지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원격제어, 위·아래 화살표까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 점자 스티커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02-6952-2580)이나 LG전자 고객센터(1544-7777)를 통해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식음료 업계도 다르지 않다. 오투기는 컵라면 전 제품과 컵밥 14종, 용기죽 8종에 점자 표기를 도입했다. 컵라면에는 물 붓는 선과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컵밥 패키지에는 제품명과 조리법을, 용기죽 뚜껑에는 기업명과 제품명을 투명 점자로 표현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음료업계 최초로 칠성사이다, 밀키스, 펍시콜라 등 탄산음료 제품에 음료 대신 ‘탄산’이라는 점자를 넣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칠성사이다, 밀키스 등의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해줄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인 닥터지(Dr.G)도 전 제품 용기에 점자를 표기했다.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취지에 따라서다.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한글 점자를 도입, 확장해 이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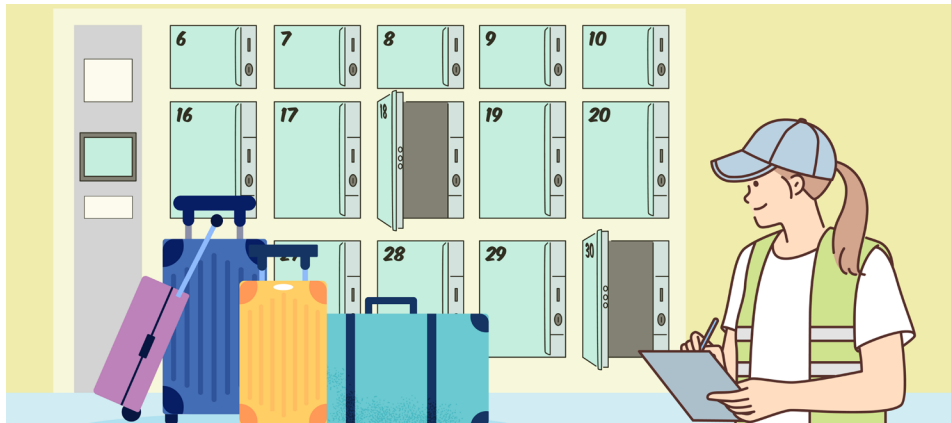
여행 짐 관리원

발달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다

코로나 시국이 엔데믹 시대로 바뀌고 하늘길이 열리면서 많은 이들이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 이로써 주춤했던 여행업계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공단은 ‘여행 짐 관리원’이라는 여행 관련 직무개발에 나섰다, 취업 취약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됐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글 편집부

* 2022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호황 맞은, 여행 짐 배송업계에서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는 지난봄 공식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 선언을 했지만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여행수요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짐 배송 플랫폼 업체들이 특수를 누렸는데 대표적인 민간업체로는 ‘(주)짐캐리’를 꼽을 수 있다. 이 업체는 2021년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항 짐 배송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 회사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이 철도역 짐 배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용실적 2만 건 이상, 소비자 만족도 96% 이상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마쳤다.

공단은 이처럼 짐 배송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는 시기인 점과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이와 관련한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여행객들이 짐 없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짐 관리원’ 직무를 개발했다. 비대면 짐 배송 서비스란 말 그대로 여행객들이 짐 없이 가볍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 서비스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무인보관함 관리와 수하물 운송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며, 여행객이 역이나 공항의 무인보관함에 짐을 맡기면 여러 관광거점의 IoT 보관함에서 자신의 짐을 픽업할 수 있다. 짐 없이 훌가분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에 여행객들의 반응이 좋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로 손꼽힌다.

취업 취약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

여행 짐 관리원은 장애 인구 중에서도 특히 취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과 장년·고령장애인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지난해 공단에서 조사한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5.5%로 장애인구 고용률 34.3%와 비교했을 때 8.8%p가 낮았고, 전체 인구 고용률 62.7%에 비해서는 37.2%p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년·고령장애인은 전체 연령 구간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이에 공단은 전체 장애인구 대비 경제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장년·고령장애인에게 여행 짐 관리원 직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 구축을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하여, 이들이 빠르게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파트너와 함께 근무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설계했다. 체력에 강점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장년·고령장애인이 길 안내와 수량 체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 구성을 짰다. 이후 공단은 대구지역본부 취업지원부의 협조로 직무분석을 진행하고 위에서 소개한 짐 배송 플랫폼 업체인 (주)짐캐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발달장애인과 장년장애인, 취업에 성공하다

사실 (주)짐캐리는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한 이력이 없는 업체로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공단은 여러 차례 업체로 제안서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부산, 대구, 제주도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주)짐캐리는 우선 대구지역의 지하철 무인보관함 관리 직무부터 장애인을 시범 고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대구지역의 채용 면접을 통해 지적장애인 1명과 자폐성 장애인 1명, 총 2명을 선발하여 훈련복을 지급,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 달간 직무를 수행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무인보관함 관리 직무의 팀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년장애인 채용을 업체에 추천했고, (주)짐캐리도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장애인 인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때마침 (주)짐캐리는 사업 확장을 위해 제주지역을 거점으로 배송 업무를 확대하고 있었는데 해당 직무에 운전과 배송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년(지체)장애인 채용을 바랐다. 공단은 제주지사의 협조를 통해 짐 배송 직무의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1명의 장년(지체)장애인이 선정했으며, 이 장애인 역시 인턴직을 훌륭히 수행하고 최종 채용되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신규 분야에 더 많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며, 기업에는 장애인고용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관한 선입견을 없애고, 장애인에게는 직무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과 제대로 핏이 맞는 변호사, 이성준입니다.”

이성준 법무법인 다음 변호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재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이성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거나 자문하는 곳들만 봐도 그가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헬스케어, 노동·인사 등을 주 업무 분야로 삼아온 그가 2022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건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공단과 제대로 핏(Fit)이 맞는 이성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공단의 비상임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음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손상을 입었고 1999년 당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헬스케어와 노동 분야에 특화된 업무 경력을 살려서 2022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비상임감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뭔가 이뤄야겠다, 하는 큰 꿈을 품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1999년에 사고로 장애를 가진 후에 2년간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욕창이 심해져 욕창 수술을 받은 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활로를 찾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공부'였고 그런 생각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이 아닌 경제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고, 이동 문제 때문에 신림동 고시촌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홀로 온갖 제약들과 싸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집에서 공부한 지 7년 반. 사법고시에 패스하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건을 담당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변론이나 사건이 있었나요?

2017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지 얼마 안돼 시작해서 올해 5월에야 마무리된 사건이 떠오릅니다. 무려 6년이나 변호한, 저에게 좀 남다른 의미의 사건이에요. 청소년기에 심장이식을 받고 10년 뒤에 심부전 악화로 사망한 환자의 사례였습니다. 심장이식을 받은 분들을 잠재적 시한부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편견을 느꼈고,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워 유가족들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보람된 일이었죠.

11년 차 변호사로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보통 의료전문변호사라고 하면 의사, 간호사 출신을 떠올리는데 저는 중환자실 입원부터 일반병동 입원, 여러 진료과의 진료를 경험한 '환자 출신 변호사'입니다. (웃음)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5년 가까이 근로자로 조직생활을 했던 경험이 인사노무 관련 분쟁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헬스케어,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부분을 넘나들면서 유기적으로 변론할 수 있고, 환자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 변호할 수 있다는 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지 환경과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코엑스 무역센터 건물 안에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는데요, 휠체어로 어디든 다닐 수 있을 만큼 물리적인 장벽이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건물입니다. 장애인이 일하기에 더없이 편한 공간이고, 동료들도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사람들이라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죠. 문제는 출장을 나갈 때인데요, 변호사는 출장이 많

은 직업이거든요. 기일에 맞춰 법원도 가고, 자료 수집을 위해서 경찰서나 검찰청도 가야 하고요. 관공서 건물 중에 오래된 건물들은 배리어 프리가 잘 구축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아요. 아쉽지만 이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개선할 부분이라 여기며 ‘이동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성준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임감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 함께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고용 문제는 보건과 노동의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영역이에요. 제가 장애인이면서, 의료와 노동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인지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늘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커리어와 결도 맞고 핏도 맞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직업인으로 쌓은 경험과 보건분야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장애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녹여내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직접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단 감사실의 감사 업무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렴·공정한 감사로 장애인고용 파트너를 지원한다’는 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사실의 비전이에요. 저는 이 비전을 실현할 토대로 내부 감사 시스템의 체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시스템의 체계화는 정확한 문제 진단과 점검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공단의 내외부 청렴도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될 거예요. 작년만 해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 등급 격상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종합청렴도 등급이 계속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 체계화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다큐 3일’ 사법연수원 편에서 하셨던 인터뷰에서 ‘신은 때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섭리로 당신의 먼 앞날을 걱정해주는 법이다’라는 문장을 말씀해주셨는데 아직도 이 말이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 경구를 이정표 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시공부하면서 틈틈이 읽었던 소설, 아마오카 소하치가 쓴 『대망』에 나오는 문장인데 마치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 늘 간직했던 문장이예요.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되었고, 생각지도 않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런 일들이 내 먼 앞날을 위해 신이 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엔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라는 문구를 새로이 품고 있어요. 자기계발서를 보다가 만난 문구인데, 생각이 말을,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삶의 방향과 운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지요. 스스로의 운명을 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긍정 에너지를 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쉽진 않네요. (웃음)

구직과 취업을 앞둔 장애인 분들, 그리고 독자분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주체님께 느껴질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각자의 숙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만의 깨달음이 형성된다고 느낍니다. 가장 쉬운 숙제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나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얻은 깨달음은 다음 도전을 위한 단단한 자양분이 되어줄 겁니다.

변호사 이성준과 사람 이성준, 목표한 바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상 깊은 문장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엔 ‘적합한 일을 갖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 ‘나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변호사 이성준과 인간 이성준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거창한 계획과 목표보다는 앞으로 30년 정도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로 의뢰인들에게 남길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근로자분들께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변호사이자 비상임감사로 남고 싶습니다.

“경험을 발판삼아 지속가능한 내 일을 꿈꿉니다.” 섬섬옥수,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일터

용산역 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반 층만 올라오면 만날 수 있는 이곳, 섬섬옥수는 당일 열차표를 가진 모든 이에게 열린 네일케어 서비스 공간이다. SK쉴더스가 중증 여성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3호점(광명역) 오픈을 눈앞에 그리고 있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미소를 짓고 있는 김아론 네일아티스트



입소문이 만들어낸 꾸준한 성장

용산과 안양, 대전, 울산, 부산역 등 전국 주요 기차역 곳곳에서 ‘섬섬옥수’라는 간판이 걸린 매장을 찾아볼 수 있다. 철도역 가용 공간을 활용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이 함께 협업해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매장이다. 한국철도공사가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네일 아티스트의 교육과 양성, 취업 알선을 맡았다.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은 매장 운영 주체로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현재 안양역과 용산역 운영을 담당하는 SK셀더스는 민간기업 최초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 4월 문을 연 용산역점은 개장 초기에만 해도 찾는 이들이 하루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았다. 기차표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네일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행객 감소가 운영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팬데믹 와중에도 이용 고객의 뜨거운 후기를 바탕으로 예약이 점차 늘고 있다.

현재 하루 이용 고객은 평균 6~7명 정도, 연휴 혹은 금요일에는 최대 15명 정도 방문하고 있다. 사실 SK셀더스는 용산점 개점을 준비하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소통은 원활하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개점과 동시에 걱정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기(보조공학기기)로 고객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현재는 구화와 의사소통용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문제없이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과 네일 상담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김아론 네일아티스트



그녀는 의사소통기(보조공학기기)를 통해 고객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막힘없는 소통으로 더 쉽게, 더 가까이

현재 용산역은 청각장애인 구성원으로만 오전 4명, 오후 5명이 하루 네 시간씩 교대 근무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SK철더스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인 안양역의 경우 청각장애인 외에도 지체장애, 신장장애 등 보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네일아티스트가 일하고 있다고. 용산역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여성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섬섬옥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섬섬옥수는 카카오톡을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예약 후 메시지를 통해 매장의 운영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방문객도 가끔은 존재한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수어로 대화하는 농인과 구화로 입모양을 읽고 소통하는 구화인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해도 계속 말을 걸거나, 매장 운영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SK철더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 내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의사소통기 외에도 필담 도구를 마련하여 극복하고 있다.

홍보가 잘 되지 않던 초기의 고민도 적극적인 언론 노출과 고객의 입소문 마케팅으로 해결했다. 매장 오픈 2년 만에 SK철더스의 주력 사회공헌 사업으로 떠올랐고, 열차 이용객과 SK철더스 직원,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까지 방문하며 규모를 키웠다.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지속가능한 일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과거 장애인의 재능과 무관하게 한정된 일자리만 존재했다면, 장애인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겠다는 포부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전문직종의 폭도 늘어난다는 뜻. 이런 직종은 단순 일자리보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SK철더스 역시 앞으로도 기업이 가진 인프라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에게 안전, 안심의 가치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올해는 이런 활동을 더욱 확대해 연내 섬섬옥수 3호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고. 네일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운영팀에도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 인력을 구성해 직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업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를 응원하고 싶다면, 기차역을 방문하는 날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섬섬옥수’를 찾아볼 것.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는 길, 청각장애인의 손길로 탄생한 부드럽고 고운 손이 설레는 마음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테다.

미니 인터뷰

"여행의 시작과 끝에서 설레는 만남을 기다립니다."



도현정 SK실더스 인재영입팀

저는 SK실더스 장애인 채용 담당자로, 섬섬옥수 사업장 구축 및 보안 장비 설치 등을 비롯해 매장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K실더스는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두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력 개발 기회 제공하거나,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인권보장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직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염려가 기우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용산점과 안양역점 직원 분들 역시 누구보다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같은 직장인으로서 많이 배우고 힘을 얻기도 하죠.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장애인 일자리 조성에 대해 더욱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섬섬옥수가 앞으로도 열차 이용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남는 여운을 더해주는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나와 꼭 맞는 일을 찾았어요!"



김아론 네일아티스트(청각장애)

2년째 섬섬옥수 용산점에서 네일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네일아트를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훈련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렇게 어엿한 네일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어 새삼 뿌듯합니다. 취업 전에는 동료끼리 서로의 손에 연습만 하다가 막상 고객에게 네일케어를 하려니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늘 실전처럼 꾸준히 이어간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툴렀던 연습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너무 웃기지만 지금은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이제는 저를 찾는 단골 고객도 늘고 있고, 케어를 마친 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네일아티스트로서 앞으로 더 실력을 키워보겠다는 마음이 커요.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남은 시간엔 틈틈이 공부와 연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가올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네일아트 분야에 참가해 대상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소통협력실의 단짠 케미로 단짠 휘낭시에를 만들었습니다.”

소통협력실 김현종 실장, 강봉구 과장

단짠은 양극단의 맛이 서로를 보듬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탄생시킨다. 이처럼 소통협력실 내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김현종 실장과 강봉구 과장이 단짠의 정수인 솔티캐러멜 휘낭시에를 만들기 위해 제과 공방을 찾았다. 달콤 짭짤한 의외의 단짠, 아니 의외의 단짠 케미를 만나보자.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솔티캐러멜 휘낭시에를 만들기 위해 공방을 찾은 김현종 실장(오른쪽)과 강봉구 과장

달콤 짝짤한 선후배 사이

급한 업무를 해결하고 오느라 늦은 소통협력실의 김현중 실장과 강봉구 과장은 돌발적인 일에 대응하는 게 익숙해 보였다. 김현중 실장은 “공단과 관련된 언론 대응부터, 대내외적인 이슈들은 미리 노크하면서 오는 법이 없네요”라며 공방 선생님께 늦은 데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대내외 홍보부터 국제협력, 대외협력, 사회공헌에 이르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협력실의 두 사람은 오늘만큼은 달콤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며 기대감 높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오늘 만들 제과는 ‘솔티캐러멜 휘낭시에’. 카라멜의 단맛과 고명으로 올라가는 소금의 짠맛이 균형감 있게 어우러지는 고급 디저트다. “과리 증권가 주변에서 금괴와 비슷한 모양의 과자가 유행했는데 그게 휘낭시에의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휘낭시에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온 강봉구 과장. ‘오~ 제법인데?’ 하는 표정으로 눈빛 교환을 하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휘낭시에 만들기에 돌입했다.

시작은 버터를 태우는 일부터다. 고체인 버터를 미열로 가열해 아메리카노 색이 될 때까지 녹여야 휘낭시에만의 풍미와 색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30도까지 올라간 녹은 버터를 50도가 될 때까지 식힐 동안, 두 사람에겐 각각 거품을 낼 수 있는 휘퍼가 쥐어졌다. 흰자에 설탕과 물엿을 넣고 풀어주는 작업을 위해 팔목과 팔꿈치 사이에 있는 전완근을 불태우며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거울이자 행운인 사람들

자르고, 휘젓고, 거품을 내는 동안 평소 주방에 있던 시간이 서로 가늠되기 시작했다. 주방용품을 다루는 솜씨나 숙련도의 차이가 얼핏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근데 실장님 왜 다 잘하세요?” 김 실장의 거품기 젓는 솜씨에 강 과장이 실소를 터뜨린다. 그도 그럴 것이 강 과장이 말한 김 실장의 강점은 ‘하이브리드형 리더’였기 때문이다. 실무와 관리, 그리고 신입 직원들과 연차 높은 직원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빈틈없이 해낼뿐더러, 업무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선배의 모습을 한없이 동경한다고 말했었는데 요리까지 잘하시다니, 하는 감흥 섞인 투정이었다.

“그래도 과장님이 더 예쁘고 잘생겼어. 과장님은 나랑 다르면서도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 하며 웃는 김현중 실장. 공단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거의 모든 사회를 20년 동안 담당했던 그가 ‘후임 사회자’로 강봉구 과장을 선택한 건 선하면서도 모든 일을 매뉴얼에 맞게 하는 정확한 성격을 봤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공단의 주요 행사 중의 하나인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치르면서 김 실장은 본인의 선택을 더욱 확신했다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규모로 행사를 기획해, 150명 이상의 오찬을 준비하는 큰 행사였다.

총괄하는 김 실장의 눈에 강 과장은 섬세한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일들에는 낮게, 빠른 처리를 요하는 일에는 신속하게,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는 긴밀히 협조를 구하며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리고 강 과장뿐만 아니라 이런 직원들이 모여 있는 소통협력실을 이끌어가는 건 행운과도 같다는 말도 잊지

얇은 김 실장이었다. 서로의 칭찬이 오가는 이때, 때마침 반죽의 대미를 장식하는 캐러멜 소스가 등장하며 달달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우리가 하는 일은 썩 괜찮은 일이니까

계량을 거친 서로 다른 재료들이 한 볼에 순서대로 섞여 반죽으로 완성되었다. 찰주머니에 넣어 금과 모양의 틀 위에 균등하게 반죽을 짜낸다. 틀 높이의 80%만 채워지도록 반죽을 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온다. 점심시간에 했던 운동을 후회하는 두 사람. 짬이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배드민턴을 함께 치는 배드민턴 메이트이기도 하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 생각하기 때문.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만드는 휘낭시에처럼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 거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하며 웃는 두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올해 9월에 베트남 장애인고용정책 역량강화 연수사업을 위해 하노이 출장을 앞두고 있다. 베트남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 관련 지원제도와 직업 훈련 등의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만큼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만큼의 자부심과 그만큼의 책임감이 공존하는 직원들에게 김 실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소통협력실은 타 부서와 협력할 일이 많아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개인의 철학과 다른 일을 할 때도 있고, 목표를 위해서 작은 희생은 감수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니까요”

190도에서 15분 구워 나온 휘낭시에를 조금 식히고 난 뒤, 단짠에서 ‘단’을 담당하는 캐러멜 소스를 상부에 바르고, 그 위에 ‘짠’을 담당하는 펄숄트를 2~3알씩 뿌린다. 각자 완성된 휘낭시에를 시식하며 단짠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움과자는 실온에다가 하루 정도 뒀다가 먹으면 적당히 단단해지면서 맛이 극대화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 사람은 직접 만든 휘낭시에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을 생각에 이미 마음이 들떠버렸다.

달콤하면서도 짹짹한 휘낭시에가 맛의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다르면서도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두 사람의 단짠, 아니 단짹 케미가 빛나는 시간이었다. 이제 막 소통협력실에 합류한 강봉구 과장과 소통 베테랑으로 손꼽히는 김현중 실장. 보기 좋은 선후배이자, 서로 간 세대의 거울이 되어주기도 할 두 사람의 케미를 앞으로도 기대해보고 싶다.



190도에서 15분동안 구워 완성한 두 사람의 솔티캐러멜 휘낭시에

체험 소감 한마디

소통협력실 김현중 실장



"사랑하는 우리 소통협력실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요."

각기 다른 재료가 섞여서 이렇게 예쁜 디저트가 완성되었네요. 공단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공공성과 균형감이 있습니다. 공공성은 좋은 재료, 균형감은 정확하게 계량해서 레시피대로 제대로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싶을 만큼 우리가 하는 일과 휘낭시에를 만드는 과정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리 소통협력실 직원들과 작지만 큰 의미를 담은 휘낭시에를 나눠먹고 싶습니다. 올해 딸과 함께 만들 음악 앨범을 현재 작업 중입니다. 이 앨범도 잘 완성돼서 가족들에게도, 저에게도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소통협력실 강봉구 과장



"종일 기대했을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휘낭시에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역시 제가 맡은 대외협력 관련 업무도 소통과 연계가 중요해서 닮은 듯 다른 두 가지 일이 여러모로 겹쳐 보였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공방 체험하러 온다고 말했을 때 아내가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제과 선생님과 실장님 덕분에 완성도 높은 휘낭시에를 선물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 이 자리를 빌려 공단 식구분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향후 5년간(2023~2027) 어떻게 바뀔까?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매 5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한다. 얼마 전,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5년)’이 발표되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글 편집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15세~64세)은 약 50.3%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근로자의 중증장애인 비중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편이다. 의무이행률이 높은 공공부문은 주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되어 이 역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구 고령화와 산업 고도화 등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의무고용률의 상향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존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분명한 한계가 나타났다. 더불어 AI 기술 발달로 장애인 취업자의 36.7%가 종사하는 제조업·농림어업·도소매업의 일자리 축소가 예견되어 있다. 향후 디지털 전환이나 생산공정의 자동화 등 유통구조의 변화도 장애인고용에 불리한 여건이 될 것이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이러한 시류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수단을 다양화했다. 또한 장애인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4가지 추진 과제를 담았다.

4대 추진 과제는 ▲새로운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 등이다.

새로운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 확대

먼저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 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보다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2022년 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 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내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올해 0.8에서 2026년까지 1%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등과의 물품 판매 계약, 홍보를 전담하는 별도 대행기관을 지정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판매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IT, 스마트팜, 문화예술 등 미래 성장 가능성·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표준사업장 설립 시 가점부여, 지원강화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대기업 고용지원전담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신설해 의무고용률 미만인 모든 대기업에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IT·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업종을 포함해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약 360개 적합 직무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도 강화한다.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과 의무이행 여부 등 고용현황을 올해 7월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한다. 국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ESG 정보공시’에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와 장애인 고용 현황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된다.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공공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해 3.6%에서 내년 3.8%로 상향하고, 공무원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 시 경력 인정기간을 퇴직 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 검토된다. 또한 올해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 중 ‘장애학생 선발·지원’ 부분의 배점을 5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해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이공계 장애대학(원)생 대상 직무현장체험·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해 장애인 연구인재 풀 확대와 일자리 매칭 등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개인 이력을 고려한 심층상담 후 개인별 고용계획 수립하는 ‘장애인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잡 컨설턴트가 구직부터 고용안정까지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브릿지’를 신설, 올해 시범적으로 5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패키지 참여자 대상 조기(재)취업 수당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발달·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해 올해 인턴 경험과 정규직 전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인턴제’에 발달장애 유형도 추가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에게 정신 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일대일 약물관리와 심리상담 제공해 직장 적응과 고용유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지원은 올해 18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내년 45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계성 지능장애 등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도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취업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증·고령 장애인의 소득보장·일자리 경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올해 3만여 개에서 2027년까지 4만여 개로 단계적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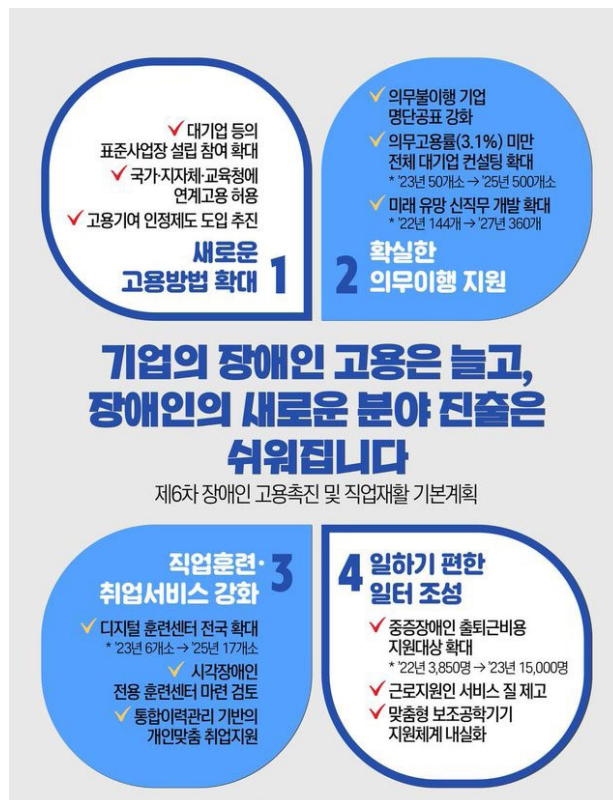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분야 장애인 인력풀 확대를 위해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디지털 기초과정을 증대하여 청년 발달장애인의 취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일하기 위한 일터 조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알맞은 작업환경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까지 빅데이터에 기반한 적합기기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온라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역량 교육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기체험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라인 보조공학기기 정보제공·신청 시스템을 2024년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신청제’ 도입에 따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수요를 방영한 지원물량도 확대한다.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NCS 개선, 양성 표준모델 마련 등 교육·검정체계를 국가자격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 실제 업무수행 시 필요한 더욱 현실적인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편, 보수과정 수료 의무화 등 자격 유지 요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장을 검토하고 이동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 권익 보호도 마련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내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교육 수요자가 장애유형·업종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분 내외의 모듈형 콘텐츠 개발하며, 인식개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 예정이다.



새로운 고용방법 확대 1

- 대기업 등의 표준사업장 설립 참여 확대
- 국가·지자체·교육청에 연계고용 허용
-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 추진

확실한 의무이행 지원 2

- 의무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강화
- 의무고용률(3.1%) 미만 전체 대기업 컨설팅 확대
* 23년 50개소 → 25년 500개소
- 미래 유망 신직무 개발 확대
* 22년 144개 → 27년 360개

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늘고, 장애인의 새로운 분야 진출은 쉬워집니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직업훈련·취업서비스 강화 3

- 디지털 훈련센터 전국 확대
* 23년 6개소 → 25년 17개소
- 시각장애인 전용 훈련센터 마련 검토
- 통합이력관리 기반의 개인맞춤 취업지원

일하기 위한 일터 조성 4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대상 확대
* 22년 3,850명 → 23년 15,000명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질 제고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내실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4대 추진 과제 이미지 / 사진. 고용노동부

스페인, 독보적인 장애인고용 재단을 만들다 장애인지원단체, 온세(ONCE Social Group)

세계 각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장애인고용사업체가 있다. 스웨덴 ‘삼할(Samhall)’, 영국 ‘엠펙로이(Employ)’, 독일 ‘장애인 작업장(WfbM)’, 일본 ‘특례자회사’, 네덜란드 ‘케어팜(CareFarm)’, 미국 ‘굿월스토어’ 등이다. 이번호에서는 현재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페인의 장애인지원단체인 ‘온세(ONCE)’의 활동을 소개한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스페인의 장애인복지 총본산, 온세(ONCE)의 성장 배경

스페인의 대표적인 장애인지원단체는 ‘온세(ONCE : National Organization of the Spain Blind)’이다. 온세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스페인시각장애인협회’ 조직 명칭이고 다른 하나는 시각장애인 협회가 발행하는 복권(lotto)의 이름이기도 하다. 온세는 1938년 12월에 설립되었고 시각장애인협회지만, 시각장애인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인 장애인 복지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온세의 활약은 장애인복지, 고용, 교육, 치료 등 전 영역에서 압도적이다. 이러한 온세가 최근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주목받고 있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청소용역 사회적기업인 일루니온(ILUNION社)과 합병하여 ‘온세 소셜 그룹(스페인어: grupo social ONCE)’을 만든 것이다. 이는 종업원 7만여 명 규모로 유럽 최대의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



온세(ONCE) 복권사업소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모습



온세 소셜 그룹(스페인어 : ONCE grupo social) 로고 이미지

모든 장애인을 위한, 온세(ONCE)의 역사

온세의 역사는 1935년 스페인 시각장애인의 전국 조직(Sindicat de Cecs de Catalunya)에서 복권을 발행하면서 시작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반정부군이었던 ‘프랑코’ 총독이 정권을 잡자 그를 지지하던 온세는 1938년 12월 13일에 본격적인 친정부 비영리단체로 출발하며 복권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온세의 수익구조는 주로 복권과 기부로 이뤄진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권을 판매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고용, 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다. 온세는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권 중 하나이며, 매일 1회씩 추첨한다. 아울러 매년 8월 15일에 행사를 열어 ‘El Cuponazo de Verano’라는 특별 로또를 발행하는데, 상금은 2억 유로(약 3,000억 원)에 달할 정도이다.



초기 온세 복권의 형태(1953.11.16. 발권)



최근 온세 복권의 형태(2023.6.11. 발권)

우리나라에서도 구매 가능한 세계적인 복권이기도 하다. 온세의 복권 수익 50%는 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비와 복권 기금으로 활용된다. 사업비는 판매점에 대한 수수료, 발행경비, 추첨 발송비 등을 포함한다. 복권 기금은 시각장애인을 넘어 모든 장애인의 자립과 통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젝트에 쓰인다.

장애인고용의 중심, 온세(ONCE)의 활약

온세는 복권으로 얻어진 수익으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마드리드 자치대학 부설 물리치료학과에서 물리치료사(안마사)를 양성하고 기초교육,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 체육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와 협력해 공연, 전시,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스페인 장애인예술협회와 함께 ‘장애인 예술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중요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장애인고용 분야에서 온세의 역할은 압도적이다. 온세는 복권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1980년대부터 산하에 ‘FUNDOSA’, ‘CEOSA’ 등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세탁, 식품 소매, 주거·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해왔다. 2014년에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청소용역 업체인 일루니온과 합병해 온세 소셜 그룹(ONCE Social Group)을 재창업하는데 이르렀다.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난, 온세 소셜 그룹

이른바 지주회사 온세 소셜그룹 산하의 ‘일루니온(ILUNION)’은 청소 및 환경 분야에서 선두 기업이었던 면모를 그대로 살렸으며, 본격적인 장애인고용 전문회사로서 성장했다. 상업 청소, 병원, 농식품, 제약 부문, 기술과

화학 청소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조정 및 원예사업으로 확장해 공공기관과 개인 녹지 공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산업용 세탁사업을 주력으로 했다. 현재 스페인을 넘어 포르투갈과 남미 콜롬비아까지 약 45개의 세탁산업 공장을 보유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주요 호텔 체인, 병원, 정부산하의 청소 위생산업과 과점하며 6,000여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중 4,800여 명은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거·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수행하는 중이다.

이렇듯 온세 소셜그룹은 시각장애인 복권판매원 7,000여 명을 포함해 약 3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에 따라 그야말로 장애인고용 전문 사회적기업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2023년 현재 7만 1,000여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 58%는 장애인이며 42.8%가 여성이다. 스페인 전체 GDP의 0.27%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회적기업이며 스페인 정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실제로 2022년 11월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했을 때 온세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하여 화제가 됐다. 대통령 초청 국빈 행사로 개최된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의 주제 중 하나로 ‘한·스페인 장애인고용’이 선정될 정도였다. 이를 통해 스페인에서의 온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덕분에 한국 측 토론자로 필자가 참석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출 제로(0), 이젠 절약 과시의 시대 영끌, 호캉스, 오픈런은 끝났다!

최근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이다. 작년부터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기세, 가스 요금과 같은 공과금은 물론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 요금도 줄줄이 올랐다.

젊은 세대에게 유행하던 ‘영끌, 호캉스, 오픈런’ 등의 용어는 어느새 절약과 소비지출방어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MZ세대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글 편집부



MZ세대의 슬기로운 절약 과시 생활

과소비 대신 무지출이나 저지출과 같은 과시 절약 문화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과시 절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절약을 주제로 이야기하며 즐기는 대화형과 자신의 지출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인증형이다. 대화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거지방’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뜨는 500여 개의 방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방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천여 명이 모여 자신의 소비 습관을 공유한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돈을 썼는지에 대한 지출 내용을 올리면, 방에 있는 동참자들이 엄격한 평가와 피드백을 나눈다. 소비 내용이 합리적이면 칭찬과 함께 돈을 써도 된다는 합의에 다다른다. 반대로 불필요하거나 과하게 돈을 썼다고 판단되면, ‘돈이 남아도느냐’, ‘금수저냐’ 등의 따끔한 충고를 한다. 거지방 성향도 제각각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유순하게 운영되는 방이 있는가 하면, 진지하게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

는 방도 존재한다. 대화형 절약이 이야기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면, 인증형 절약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스타그램)에서 '#무지출챌린지' 키워드를 적극 활용해 인증하고 자랑하는 방식이다. 무지출챌린지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 도전을 일컫는 말이다. 특정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동안에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SNS에 인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무지출챌린지를 태그한 게시물이 1만여 개가 넘는다. 무지출이나 절약 습관을 인증하며 공유하는 이 일련의 유행은 비단 특정 SNS에 한정되지 않는다. 디시인사이드, 더쿠, 에펨코리아 등 여러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무지출 인증글이 올라온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실천을 과시하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 기존 과소비 문화에 대한 거부감, 타인과 함께 처지를 나누면서 느끼는 안도감, 절약을 통한 성취감 등이 과시 문화의 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에서 건강 지키고, 돈도 벌고!

MZ세대가 소비지출방어와 동시에 소소한 부수입을 늘리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짠테크'와 '앱테크'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두 용어는 각각 '짜다'와 '애플리케이션'을 재테크와 결합한 합성어다. 짠테크로 지출 비용을 줄이고 앱테크를 통해 소소한 부수입을 늘린다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짠테크는 다양하다. 가게부를 작성해 쓸데없는 지출을 인지하고 줄이는 것, 새 제품 대신 중고 거래 앱으로 중고품을 구매하는 것, 알뜰폰을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짠테크에 포함된다. 특히, '냉장고 파먹기'는 외식 대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MZ세대가 짠테크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준다. 손바닥 위 핸드폰에서 이뤄지는 앱테크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있다. 가장 대표적인 앱테크 중 하나는 '캐시워크'다. 걸을수록 돈이 쌓이는 만보기 앱으로 100걸음마다 1 캐시가 적립돼,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100캐시를 모을 수 있다. 또한 '돈 버는 퀴즈', '캐시로또' 등을 통해 캐시 적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립한 캐시는 전국 수만 개의 다양한 제휴점(스타벅스, 버거킹, CU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운동량이 부족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중이다. 이외에도 '네이버 마이플레이스', '토스', '샵블리' 등의 다양한 앱들은 우리가 손쉽게 앱테크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준다. 걷고 사고 먹는 일상의 모든 행동을 소소한 부수입으로 바꿔주는 앱테크,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자. 이렇듯 MZ세대의 절약 과시 문화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책 <라이프 트렌드 2023>에서 저자는 소비하지 않는 것이 취향인 시대를 강조하며, '플렉스, 오픈런, 호캉스 등 기존의 과시적 소비 경향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무지출 챌린지, 중고 시장 확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 이러한 경향을 '과시적 비소비'로 명명하고 있다. 캐나다 광고업계 종사자 테드 데이브(Ted Dave)가 1992년부터 시작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지금의 트렌드와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아무것도 사지 않음으로써, 연말 소비를 권장하는 기존의 과소비 문화에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의 주요 슬로건인 '덧셈은 시시하다. 뺄셈은 짜릿하다'는 2023년 현재 MZ세대를 중심으로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도심 속 힐링스팟, 수원 영흥수목원 다양한 세계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

최근 지자체마다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에 수목원 두 곳이 개장했는데 바로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이다. 그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영흥수목원으로 떠나보자.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시원함이 느껴지는 두충나무숲의 모습

편리한 배리어프리 수목원

영흥수목원은 시민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속 고품격 정원문화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목원이다. 그래서 그런지 햇볕 따가운 평일 낮임에도 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았다. 수인분당선 청명역에서 내려 수목원 초입에 들어서면 시원한 분수가 더위를 식히며 반겨준다.

수목원까지 가는 길뿐만 아니라 수목원 내부 길도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 잘 정비되어 있어 휠체어도 유아차도 막힘이 없다. 수목원 내·외부 곳곳에 장애인 화장실과 함께 수유실도 마련되어 있으니 어린아이들과 방문하기

도 좋다. 방문자센터에는 카페와 계단식 쉼터인 책마루가 있어서 해를 피하며 잠시 휴식하기도 좋다. 방문자센터에 정원상담실도 마련되어 있어 식물 케어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다양한 식물교육도 참여할 수 있다.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곳

영흥수목원은 구석구석 구경하는 데 한두 시간 남짓 걸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수목원이지만 볼거리는 다양하다. 수목원 입구의 방문자센터 앞에서는 붉은 단풍나무가 반기고 곳곳에 여름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이 가득하다.

방문자센터에서 1층으로 내려가 수목원 입구로 들어서면 아래로 수목원 전경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펼쳐지는데 도심의 풍경과 어우러져 그 모습이 매력적이다. 수목원 곳곳이 매끈한 산책로로 이어져 있고 일부 흙길에는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서 휠체어 바퀴나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도 숲의 정취를 마음껏 음미할 수 있다. 수목원 슷팍마다 해를 피하며 쉬어갈 수 있는 쉼터들도 있어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세계식물이 가득한 온실까지

‘수연지’라는 연못에 다다르면 작은 온실 건물이 나오는데 온실은 작지만 구성은 알차다. 이곳에는 다양한 아열대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실제 바나나 나무에 달린 바나나와 꽃이 마치 열대지방에 온 듯한 기분을 자아내고 아담한 동굴도 있어 아이들도 흥미로워할 포인트가 많다. 꽤 높은 높이의 온실 꼭대기까지 데크 경사로가 완만하게 둘러 있어서 높이가 높은 열대식물들의 아래부터 위까지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온실에서 나오면 두층나무숲으로 이어지는데 이곳부터 어린이 생태체험장까지는 경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더 숲의 느낌이 있는 곳이라 숲속을 걷는 것을 즐기는 분들께 추천한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14시에는 한 시간에 걸친 해설프로그램도 예약으로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www.suwon.go.kr/web/yharbor/index.do>
***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35
*** 운영시간 :** 09:00~ 18:00(17:00 매표 마감) 매주 월요일 휴무
*** 입장료 :**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수원시민 30% 할인, 다자녀 가정 50% 할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그 외 면제 대상자 홈페이지 확인)



모두를 위한 미래 넷플릭스 드라마 ‘어웨이(Away)’

2년마다 ‘일자리 지형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에 사라질 일자리가 무려 1,400 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현 일자리의 25%가 향후 5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거의 쓰나미에 가깝도록 엄청난 일자리 지형 변화 속에서 과연 장애인의 일자리 전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넷플릭스 드라마 ‘어웨이(2020)’가 그려낸 미래를 통해 상상해 보자.

글 차미경 칼럼니스트



드라마 ‘어웨이’는 화성으로 가는 다국적 팀원들의 가족과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 사진. 넷플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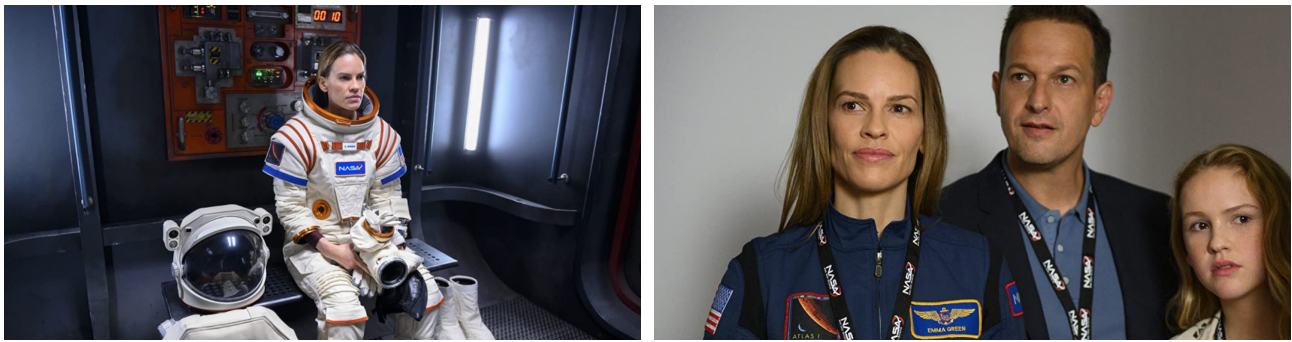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드라마

‘어웨이’는 인류 최초로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떠난 5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화성으로 가는 여정에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SF 드라마다. 국적도 경험도 인종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인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 온갖 갈등과 위기를 함께 겪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는 전 우주적인 인간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우주선의 총사령관은 에마 그린.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소년은 울지 않는다’로 2번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는 힐러리 스웱크가 그 역을 맡았다. ‘마션’이나 ‘인터스텔라’ 등 다른 SF 영화들과 달리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지향과 인종 그리고 정치적 이념에 이

르기까지 ‘다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화합의 과정을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잘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이 드라마의 장점이다. 특히 이 드라마에는 장애를 가진 캐릭터가 여럿 등장한다.

주인공인 에마의 남편 멧은 에마가 우주로 출발한 이후 뇌졸중으로 장애가 생겼다. 그로 인해 휠체어를 타게 됐지만 일터인 NASA에서 그의 장애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에마를 돕는 가장 유능하고 든든한 조력자로서 진두지휘하는 멧의 모습에서 휠체어는 그저 신발이나 슈트 같은 착용도구에 불과하다. 또 에마와 그의 딸 렉스를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다. 그리고 에마를 대신해 렉스를 돌봐 주는 멜의 딸 캐시는 다운증후군을 가졌다. 그러나 그녀의 다운증후군은 그저 캐릭터의 특성일 뿐.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애를 가진 모든 캐릭터가 그렇다.



배우 힐러리 스웱크가 맡은 캐릭터 ‘에마 그린’은 리더로서 중심을 지키려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크게 흔들린다.
/ 사진. 넷플릭스

근미래, 장애인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서두에 언급했듯 AI나 첨단기술 때문에 일자리의 지형이 급변할 가까운 미래에 장애인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이라는 명분 아래 향후 5년 동안 1,400만 개의 일자리에 매달린 사람들이 자리를 빼앗긴다지 않는가. 이런 현실의 암울함 때문에 이 SF 드라마가 보여주는 달콤한 미래에 자꾸만 입맛을 다시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

“모두가 다르게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주선에서 시력을 잃어가는 러시아인 미샤에게 영국인 크웨이시가 하는 말이다. 5인 중 우주비행 경험이 가장 많고 연장자인 미샤는 지구와 다른 환경에 오랜 노출로 시력을 거의 상실해 가는 중이다. 크웨이시는 우주선에서 지내는 동안 발바닥 각질이 불현듯 떨어져 나가 당황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을 때 미샤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 먼저 공감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 그리고 그런 일은 앞으로 미샤뿐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때가 되면 모두가 다르게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라는 낙관도 덩달아 덧붙인다. 크웨이시의 낙관, 드라마 어웨이처럼 장애가 장애 되지 않고 그저 특성일 뿐인 드라마가 현실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면 일자리 1,400만 개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1,400만 개의 일자리를 상상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피 #에스프레소 #깊이

요즘 커피에 빠졌습니다. 아메리카노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신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있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일이 일상의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는데, 에스프레소와 함께 하루를 보내다 보면 커피의 깊이뿐 아니라 삶의 깊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와 함께 삶의 깊이를 고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황○경



#푸른바다 #파도 #휴가

7월의 여름, 푸른 바다와 파도가 이어지는 그곳으로 휴가 여행을 떠나보세요. 하늘과 바다의 만남이 이뤄지는 그 순간, 진정한 휴식과 해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얻게 되는 평화와 아름다움은 일상에서 찾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최○영



#고모리저수지 #카페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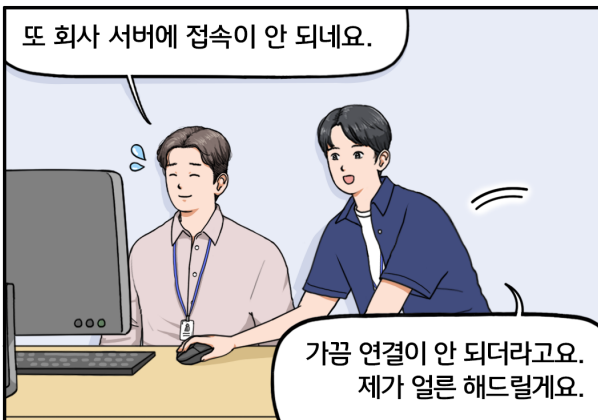
답답하고 숨막히는 도시를 벗어나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포천에 있는 고모리저수지를 걷고, 한적한 카페에 앉아서 맑은 하늘과 자연을 느끼며 차 한잔을 마셨습니다. 이렇듯 ‘브레인 디톡스’의 시간을 가지니 지쳤던 몸이 재충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친 몸과 뇌에 휴식 시간을 주는 건 어떠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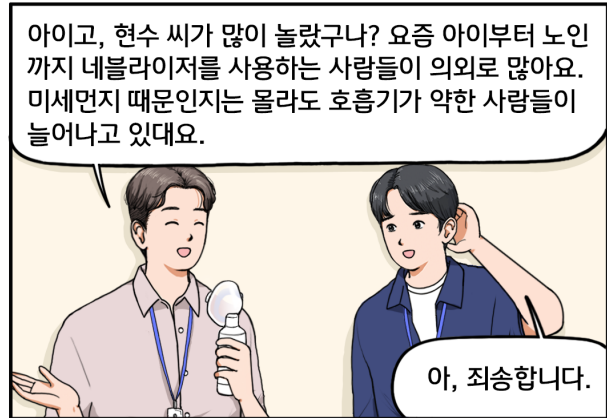
정○찬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호흡기장애 편

그림 권도연





KEAD 뉴스

굿윌스토어 재활용품 기증으로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요!



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굿윌스토어 재활용품 기증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조직 문화 조성과 저탄소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 임직원으로 구성된 디딤도리 봉사단은 6월 2일 굿윌스토어에 재활용품 18,555점을 기증했다. ‘재활용품 기증 캠페인’은 2015년부터 9년간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단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하여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순환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으로 수집한 18,555점의 기증 물품은 굿윌스토어 소속 장애인 직원들이 상품화 작업을 거쳐 전국 매장 고객들에게 재판매한다. 수익금은 장애인 자립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탄소절감, 불용기기 기부 등 다양

장애예술인과 기업의 만남 ‘Beautiful Life’ 행사 개최



보이스앙상블’은 행사에서 탁월한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다. ‘삼구아이앤씨’와 ‘파킹클라우드’에 취업한 미술단원들의 작품과, 피어라꽃물 소속단의 ‘미술작품굿즈’ 역시 전시돼 장애예술인들의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항현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기업과 장애예술인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김예지의원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이 공동 주최한 장애예술인과 기업의 만남 ‘Beautiful Life’ 행사가 6월 14일 국회 대회의실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는 장애예술단의 ‘어울림 음악회’와 그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전시회로 꾸며졌으며, 기업에 채용된 장애예술인들의 업적을 선보임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의 경연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인 코웨이 ‘물빛소리합창단’, SK에코플랜트 ‘에코울림 오케스트라단’, LS일렉트릭 ‘그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자간 직무개발 업무협약



을 통해 지속적인 장애인고용 확대 및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 이사는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4개 기업의 개발 직무가 모범 사례로서 유사 동종업계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 에드워드 코리아(주)(대표이사 윤재홍), 연세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 현대로템(주)(대표이사 이용배), 희망별숲(대표이사 강석진)은 6월 20일 공단 본부에서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활성화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직무디자인단 구축 및 운영 ▲직무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직무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장애인고용 실현 등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4개 기업은 직무개발 사업을

KEAD SNS 하이라이트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Instagram

haha_kead

도서관을 관리해보고 싶다면?
사서실무사가 하는 일은?

♥️ 댓글 공유

사서실무사가 하는 일은?
도서관을 관리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주목.
사서 업무를 보조하는 사서실무사가 있습니다.
사서실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나보세요.



Instagram

haha_kead

천년고도 경북에서 열리는
제40회 경상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

♥️ 댓글 공유

제40회 경상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
천년고도 경북에서 제40회 경상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경기 직종, 원서접수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N blog

blog.naver.com/kead1

지구를 살리는 이순간 E.S.G 탄소저감 프로젝트

지구를 생각하고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이순간(ESG) 탄소저감 프로젝트.
블로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6.19~7.14

지구를 살리는 이순간 E.S.G

지구를 생각하고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이순간(ESG) 탄소저감 프로젝트

참여 대상: ESG 상위에 관심있는 국민
참여 방법: 행사에 참가 후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 인증

주최: 환경부, KEAD
주최: 환경부, KEAD

♥️ 댓글 공유



N blog

blog.naver.com/kead1

[당당한 이야기] 저도 물놀이를 즐기고 싶어요.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물놀이, 장애인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당당한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봅시다.

당당한 이야기
당당한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봅시다.

저도 물놀이를 즐기고 싶어요.

♥️ 댓글 공유